

# 사회조사에서 경제적 변수로써 아파트 시세의 적용 가능성

이 명 진 (국민대, 사회학)

## I. 머리말

오랫동안 사회 과학자들은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사회계층이나 사회불평등을 다루는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주제와 경제적 지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Ekehammer et al., 1987). 물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단일한 측정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측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객관적인 측정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 수입, 직업 같은 변수가 포함된다. 이러한 객관적인 측정치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주관적인 측정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측정 방법은 주로 개인이 위계적인(수직적인) 전체 사회에서 어디에 속하는가를 묻는 것이다(Jackman and Jackman, 1973).<sup>1)</sup> 사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주관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 보상의 불평등 정도를 인지하거나 평가할 때, 절대적으로 경제적 보상 정도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Major and Deuax, 1982; Alwin, 1987; Jasso, 1989). 자신들이 받는 경제적 보상을 객관적인 투자나 공헌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사회적이거나 개인적인 평가기준을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집단이나 사회의 규범이나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

1) 예를 들면, 맥아더 척도(MacArthur Scale)는 한 사회를 10단계 계단으로 상정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하게 한다(Adler et al., 2000; Goldman et al., 2003).

불평등의 문제를 절대적인 시각에서 보다는 상대적인 시각에서 본다는 것이다 (Jasso, 1978; Alwin, 1987; Arts and Wijk, 1991).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한 경제적 지위 평가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가이다. 실제로 1987년 이전 이루어진 여러 사회조사에서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는 응답자가 70%를 넘었다. 물론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주제에 관해서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보다 객관적인 현실을 기준으로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파악해야 할 경우, 주관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울러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경제적 지위를 평가하는 방법도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교육이나 수입 같은 개인 정보도 실제와 다른 정보로 보고할 여지가 있다. 게다가 응답자가 수입 같은 개인 정보는 면접자에게 솔직하게 알려주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혹은 객관적 측정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측정치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유용한 자료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주택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 주택정보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먼저,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으로 인해 주택정보에 접근이 비교적 쉽다. 웹사이트나 각종 언론에 객관적인 경제적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인 주택정보가 공공에게 공개되어 있다. 둘째, 최근에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 거주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정보를 이용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건교부 실거래가 공개 등 정부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거래대상자나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아파트 매매거래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에는 전국의 500세대 이상, 분기별 거래건수 10건 이상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 가격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최근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이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보다 적절히 나타내 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배경을 기반으로, 이 연구는 주택가격을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평가하는 측정치로 사용하여, 두 가지 심층적인 탐색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주택가격과 기존에 이루어진 객관적 혹은 주관적 경제적 지위를 측정된 측정값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경제적 지위와 다른 변수와 관계를 통해서 기존 변수와 주택가격의 유용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주택가격을 이용해서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고 이를 다른 변수와 연계하여 분석할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인들의 경제적 지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연구결과가 앞으로 관련 분야에 응용가능성을 갖기를 기대한다.

## II. 자료

연구 자료로 여성가족부와 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2005년 가족실태조사와 국민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전국아파트 가격동향조사를 사용하였다. 가족실태조사는 한국갤럽이 실사를 담당하여 2005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가족실태조사는 가구를 단위로 표집한 후 가구 내 15세 이상의 가구원 모두를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2000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전국 14,311,807가구의 10세 이상 가구구성원으로 하였다. 조사지역은 전국 16개 광역시도로 표본수는 3,000여 가구이다.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지역추출법 (Multi-Stage Area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일대일 대인면접조사와 유치조사를 병행하였다(여성가족부, 2005).

국민은행의 아파트가격동향조사는 전국 아파트 가격의 매매와 전세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정부는 주택가격을 점검하고 주택정책과 주택금융계획을 수립할 때 이 조사 자료를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1만 3000여개 협력중개업소 중 선발한 7500개 시세 모니터 업소로부터 전국의 아파트 약 1만1000개 단지 3만2000개 평형의 시세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매매(임대)사례 비교법에 의하여 조사된 가격을 해당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온라인상 조사표에 입력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온라인 조사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한하여 조사원이 전화 또는 팩스로 조사한다. 조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루어지며, 전국 아파트 3,921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로 전체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 대상으로 서울에서는 강북의 14개 구 408개 아파트, 강남의 11개 구 933개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광역

시 1,236개, 수도권 2,265개, 경기도 702, 기타지방 642개 아파트가 조사대상이다(국민은행, 2006).

이 두 자료를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 가구에 대한 상세한 주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개별 면접자들이 조사의 편이를 위하여 응답자의 반응, 조사의 어려움, 연락처, 주소 등을 기록한 일종의 메타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개 이러한 메타 자료는 자료 검증을 위하여 사용된다.<sup>2)</sup> 그런데 모든 가구별 자료에 상응한 시세 자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나 임대 주택의 경우에 시세에 접근하기가 어렵거나, 시세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만 서울지역의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3,000만원 수준이고, 경기지역의 경우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액수를 각 가구의 자산규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수도권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많은 다수의 아파트 시세가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자료의 문제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세 번째, 거주 형태의 문제가 존재한다. 자기 집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전세, 월세, 사글세 등 경우에 직접적으로 아파트 매매가 정보를 활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응답자가 제공한 거주 형태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한다. 자기 집의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가를, 전세의 경우에 아파트 전세가를 적용한다. 월세의 경우는 아파트 시세 정보를 적용하기 힘들다. 자산 규모가 작아서 월세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특별한 경우에 월세로 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일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에만 아파트 시세의 10% 내외를 보증금으로 설정하는 일반적인 관례에 비추어, 이를 적용하기로 한다.

### III. 분석

#### 1. 경제적 지위 측정값과 아파트 시세의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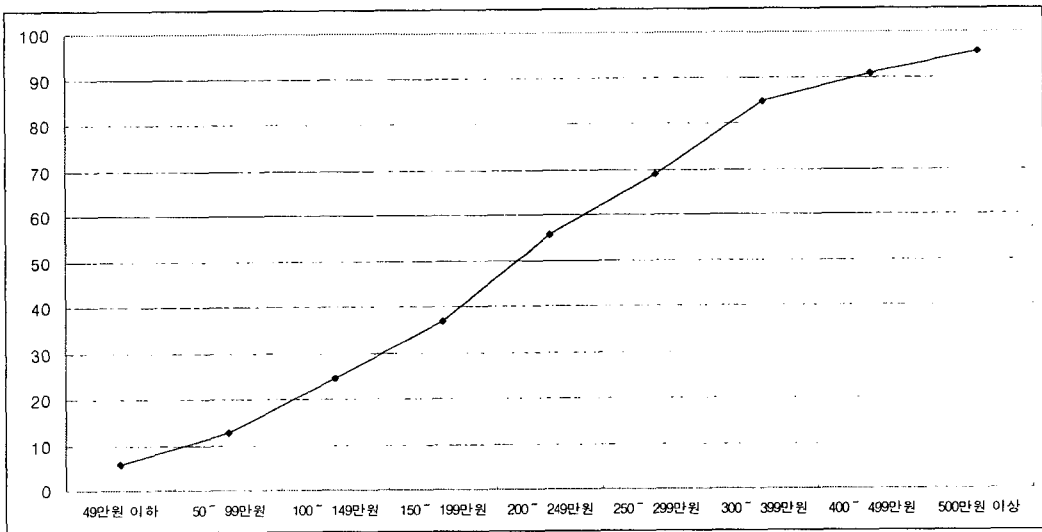
<표 1>은 2005년 가족실태조사에서 얻은 가구별 월소득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만 포함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월 소득 49만원 이하의 가구는 전체 가구 중에서 5.7%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범주는 월 소득 가구 소득이 200-249만원 범주이

2) 조사 전문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검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 한편 최상위 소득 집단인 가구 소득 500만원 이상 범주에는 전체 응답자 중 4.8%가 속해 있다. <그림 1> 이러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별 월 소득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중간값은 200만원 내외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분포가 크게 치우쳐 있지 않다.

<표 1> 소득 수준별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49만원 이하	57	5.7	5.7	5.7
50 ~ 99만원	72	7.2	7.2	12.8
100 ~ 149만원	117	11.6	11.6	24.5
150 ~ 199만원	125	12.4	12.4	36.9
200 ~ 249만원	188	18.7	18.7	55.6
250 ~ 299만원	133	13.2	13.2	68.9
300 ~ 399만원	161	16.0	16.0	84.9
400 ~ 499만원	60	6.0	6.0	90.8
500만원 이상	48	4.8	4.8	95.6
잘 모름	41	4.1	4.1	99.7
모름/ 무응답	3	.3	.3	100.0
합계	1,005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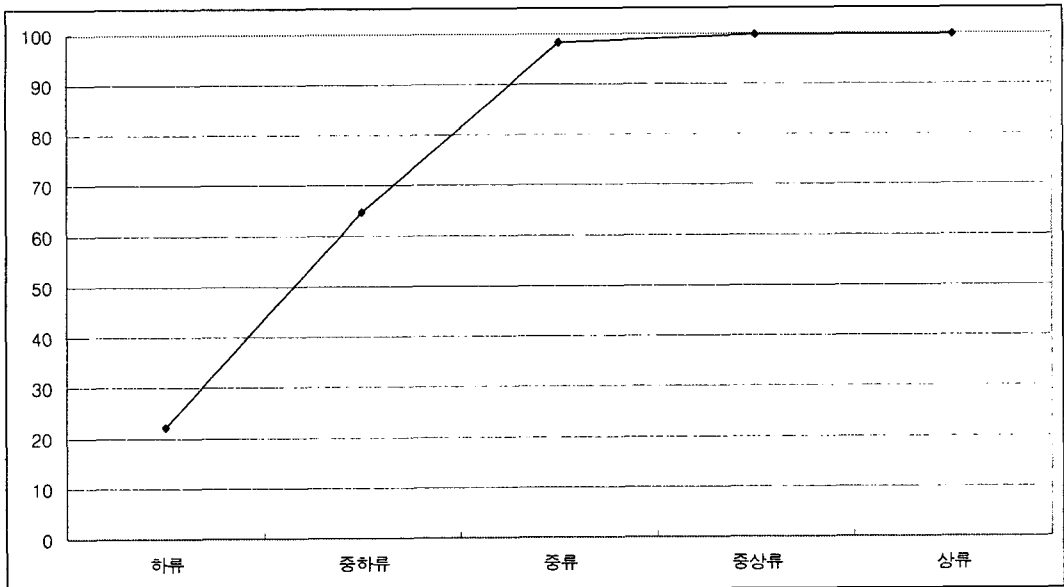


<그림 1> 소득 수준의 누적 분포

<표 2>는 응답자 가구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계층 평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상류층으로 평가를 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1,007명 중 1명으로 0.1%에 해당한다. 반면에 하층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0.2%에 해당한다. <그림 2>는 이러한 주관적 계층 평가의 누적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분포는 월 평균 가구 소득 분포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월 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에는 분포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어느 하나에 크게 치우침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에 주관적 계층 평가는 하류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에 속해 있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응답자의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 두 개의 다른 변수가 적어도 상대적 분포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관적 계층 평가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상류층 (5점)	1	.1	.1	.1
중상류층 (4점)	15	1.5	1.5	1.6
중류층 (3점)	337	33.5	33.5	35.1
중하류층 (2점)	429	42.6	42.6	77.7
하층 (1점)	223	22.1	22.1	99.8
모름/ 무응답	2	.2	.2	100.0
합계	1007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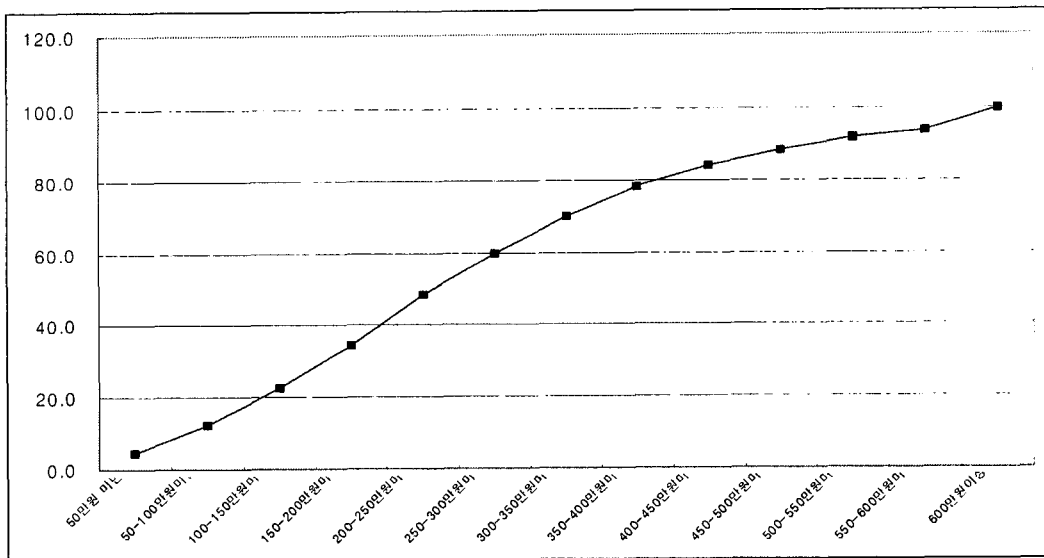


<그림 2> 주관적 계층 평가의 누적 분포

이러한 사회조사의 결과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표 3>은 통계청에서 가계조사를 통해 발표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이고, <그림 3>은 이 자료를 누적분포로 표현한 것이다. 물론 정확한 월 평균 소득 수준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인 분포는 가족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보고한 월 평균 소득 분포와 유사하다.

<표 3>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계층별 분포

	백분율	누적백분율
50만원 미만	4.64	4.6
50-100만원미만	7.44	12.1
100-150만원미만	10.35	22.4
150-200만원미만	11.83	34.3
200-250만원미만	13.95	48.2
250-300만원미만	11.62	59.8
300-350만원미만	10.23	70.1
350-400만원미만	8.20	78.3
400-450만원미만	6.01	84.3
450-500만원미만	4.13	88.4
500-550만원미만	3.39	91.8
550-600만원미만	1.91	93.7
600만원이상	6.30	100.0



<그림 3> 전국 2인 이상 소득 계층별 누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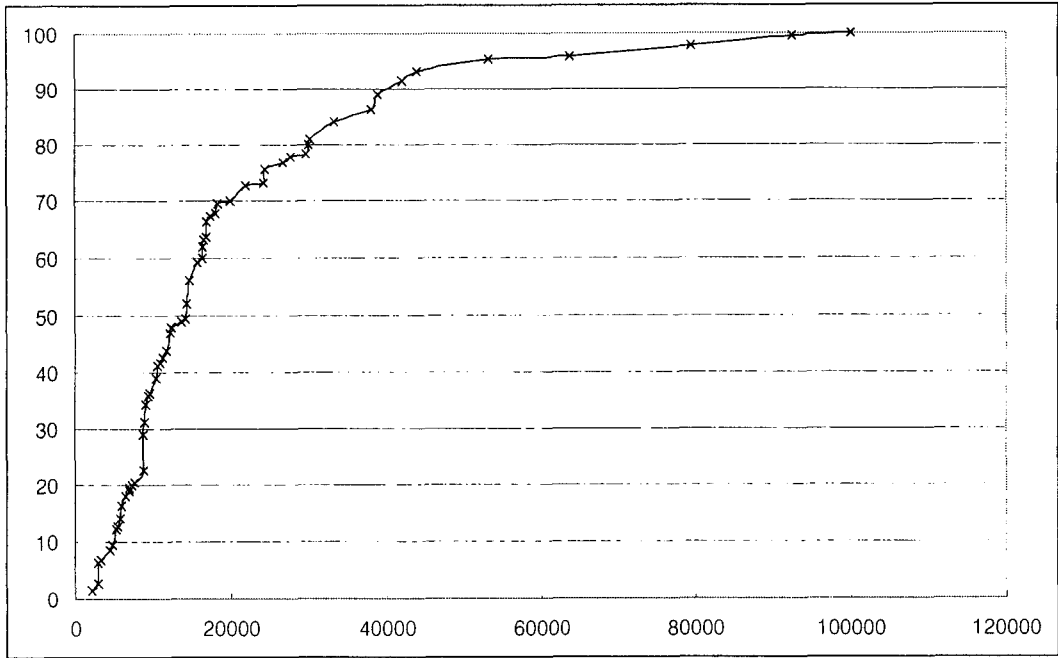
<표 4>는 가족실태조사의 수도권 거주자 중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답자 가구에 해당하는 아파트 자산 규모에 관한 정보이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자기 집의 경우는 매매가 평균을, 전세의 경우는 전세 평균을, 보증부 월세는 매매가의 10%를, 임대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원 사이의 보증금을 자산규모로 정의하였다. 국민은행 자료가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사례수가 200 가구에 한정되어 있으며, 10개 가구의 경우는 거주 형태가 불명확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4>는 이러한 아파트 자산 규모에 대한 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포만을 볼 때, 아파트 자산 규모의 분포는 월 평균 가구 소득 분포보다는 주관적 계층 평가의 분포에 보다 더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아파트 자산 규모의 누적분포는 주관적 계층 평가보다 기울기가 높다. 즉 주관적 계층 평가가 아파트 자산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치우침이 적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체로 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3) 자신의 계층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의 누적분포보다는 주관적 계층 평가의 누적분포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 아파트 자산 분포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90	2150.00	100000.00	19878.6842	18846.54

3) 통계청 자료 의하면 계층을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스스로를 중간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1991년도에는 61.3%, 1994년도에는 60.4%, 1999년도에는 54.9%에 이르렀다(홍두승, 구혜근, 2001).





<그림 4> 아파트 자산의 누적 분포

<표 5>는 월 평균 가구 소득, 주관적 계층 평가, 아파트 자산 규모 사이에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가구의 경우에는 월 평균 가구 소득과 주관적 계층 평가 사이에 상관계수가 0.527로 나타난다. 아파트 시세 규모 정보가 있는 가구에서는 동일한 상관계수가 0.495로 나타난다. 한편 아파트 시세 규모는 월 평균 가구 소득과는 상관계수가 0.333, 주관적 계층평가와는 상관계수가 0.364로 나타난다.

<표 5> 월 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 아파트 자산 간 상관계수

전체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	아파트 자산
월평균 가구소득	1 (963)	.527** (961)	.333** (187)
주관적 계층	.527** (961)	1 (1,005)	.364** (189)

아파트 자산 규모 정보가 있는 가구 (N=187)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	아파트 자산
월평균 가구소득	1	.495**	.333**
주관적 계층	.495**	1	.364**
아파트 자산 규모	.333**	.364**	1

\*\* p < .01

## 2. 경제적 지위와 태도와의 관계

다음은 여러 경제적 지위 측정값과 다른 태도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지위 측정값 사이에 전반적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된 다른 태도 변수는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이다.

<표 6>과 <표 7>은 월 평균 가구 소득 규모별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표 8>과 <표 9>은 주관적 계층 평가별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10>과 <표 11>은 아파트 자산 규모별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건강 상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고, 건강상태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관적 계층 평가와 아파트 자산규모가 높거나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고, 건강상태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그 관계가 월 평균 가구소득보다 주관적 사회 계층 평가와 아파트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월 평균 가구소득 규모별 생활만족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만족	매우 만족	모름/ 무응답	전체
49만원이하	16 28.1%	28 49.1%	10 17.5%	3 5.3%	0 0.0%	0 0.0%	57 100.0%
50 ~ 99만원	13 17.8%	28 38.4%	21 28.8%	10 13.7%	1 1.4%	0 0.0%	73 100.0%
100 ~ 149만원	11 9.5%	41 35.3%	48 41.4%	15 12.9%	0 0.0%	1 0.9%	116 100.0%
150 ~ 199만원	5 4.0%	37 29.4%	57 45.2%	25 19.8%	2 1.6%	0 0.0%	126 100.0%
200 ~ 249만원	8 4.7%	44 25.6%	80 46.5%	37 21.5%	3 1.7%	0 0.0%	172 100.0%
250 ~ 299만원	2 1.4%	37 25.5%	72 49.7%	34 23.4%	0 0.0%	0 0.0%	145 100.0%
300 ~ 399만원	1 0.6%	30 18.3%	94 57.3%	32 19.5%	7 4.3%	0 0.0%	164 100.0%
400 ~ 499만원	1 1.6%	12 19.4%	28 45.2%	20 32.3%	1 1.6%	0 0.0%	62 100.0%
500만원이상	0 0.0%	5 10.4%	22 45.8%	18 37.5%	3 6.3%	0 0.0%	48 100.0%
잘모름	6 14.6%	11 26.8%	18 43.9%	5 12.2%	1 2.4%	0 0.0%	41 100.0%
무응답	0 0.0%	1 33.3%	2 66.7%	0 0.0%	0 0.0%	0 0.0%	3 100.0%
전체	63 6.3%	274 27.2%	452 44.9%	199 19.8%	18 1.8%	1 0.1%	1,007 100.0%

주: 생활 전반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출처: 2005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표 7> 월 평균 가구소득 규모별 건강상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전체
49만원 이하	8 14.0%	29 50.9%	10 17.5%	10 17.5%	0 0.0%	0 0.0%	57 100.0%
50만원-99만원	8 11.0%	27 37.0%	20 27.4%	17 23.3%	1 1.4%	0 0.0%	73 100.0%
100-149만원	5 4.3%	25 21.6%	40 34.5%	41 35.3%	4 3.4%	1 0.9%	116 100.0%
150-199만원	2 1.6%	26 20.6%	45 35.7%	50 39.7%	3 2.4%	0 0.0%	126 100.0%
200-249만원	5 2.9%	17 9.9%	78 45.3%	66 38.4%	6 3.5%	0 0.0%	172 100.0%
250-299만원	1 0.7%	18 12.4%	64 44.1%	56 38.6%	6 4.1%	0 0.0%	145 100.0%
300-399만원	1 0.6%	13 7.9%	66 40.2%	75 45.7%	9 5.5%	0 0.0%	164 100.0%
400-499만원	1 1.6%	6 9.7%	23 37.1%	30 48.4%	2 3.2%	0 0.0%	62 100.0%
500만원 이상	1 2.1%	2 4.2%	20 41.7%	23 47.9%	2 4.2%	0 0.0%	48 100.0%
잘모름	2 4.9%	11 26.8%	12 29.3%	14 34.1%	2 4.9%	0 0.0%	41 100.0%
무응답	0 0.0%	3 100.0%	0 0.0%	0 0.0%	0 0.0%	0 0.0%	3 100.0%
전체	34 3.4%	177 17.6%	378 37.5%	382 37.9%	35 3.5%	1 0.1%	1,007 100.0%

주: 자신이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여성가족부, 2005 가족실태조사.

<표 8> 주관적 계층평가별 생활만족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만족	매우만족	모름/ 무응답	전체
상류층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중상류층	0 0.0%	0 0.0%	5 33.3%	9 60.0%	1 6.7%	0 0.0%	15 100.0%
중류층	1 0.3%	32 9.5%	203 60.2%	89 26.4%	12 3.6%	0 0.0%	337 100.0%
중하류층	11 2.6%	144 33.6%	191 44.5%	80 18.6%	3 0.7%	0 0.0%	429 100.0%
하류층	51 22.9%	97 43.5%	53 23.8%	21 9.4%	1 0.4%	0 0.0%	223 100.0%
모름/무 응답	0 0.0%	1 50.0%	0 0.0%	0 0.0%	0 0.0%	1 50.0%	2 100.0%
전체	63 6.3%	274 27.2%	452 44.9%	199 19.8%	18 1.8%	1 0.1%	1,007 100.0%

주: 생활 전반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출처: 여성가족부. 2005 가족실태조사.

<표 9> 주관적 계층평가별 건강상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 응답	전체
상류층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중상류층	0 0.0%	2 13.3%	3 20.0%	8 53.3%	2 13.3%	0 0.0%	15 100.0%
중류층	4 1.2%	24 7.1%	152 45.1%	138 40.9%	19 5.6%	0 0.0%	337 100.0%
중하류층	13 3.0%	68 15.9%	158 36.8%	182 42.4%	8 1.9%	0 0.0%	429 100.0%
하류층	17 7.6%	83 37.2%	64 28.7%	54 24.2%	5 2.2%	0 0.0%	223 100.0%
모름/ 무응답	0 0.0%	0 0.0%	1 50.0%	0 0.0%	0 0.0%	1 50.0%	2 100.0%
전체	34 3.4%	177 17.6%	378 37.5%	382 37.9%	35 3.5%	1 0.1%	1,007 100.0%

주: 자신이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여성가족부. 2005 가족실태조사.

<표 10> 아파트 자산규모별 생활만족도

	매우불만 족	다소불만 족	보통	다소만족	매우만족	전체
3,000만원 이하	0 0.0%	4 36.4%	4 36.4%	2 18.2%	1 9.1%	11 100.0%
3,000초과- 1억이하	1 1.8%	9 15.8%	37 64.9%	9 15.8%	1 1.8%	57 100.0%
1억초과-2 억 이하	3 4.7%	13 20.3%	33 51.6%	11 17.2%	4 6.3%	64 100.0%
2억초과-4 억이하	1 2.8%	8 22.2%	16 44.4%	10 27.8%	1 2.8%	36 100.0%
4억초과-6 억이하	0 0.0%	2 16.7%	4 33.3%	6 50.0%	0 0.0%	12 100.0%
6억초과-8 억이하	0 0.0%	0 0.0%	3 60.0%	2 40.0%	0 0.0%	5 100.0%
8억초과-1 0억이하	0 0.0%	1 25.0%	1 25.0%	0 0.0%	2 50.0%	4 100.0%
전체	5 2.6%	37 19.6%	98 51.9%	40 21.2%	9 4.8%	189 100.0%

주: 생활 전반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표 11> 아파트 자산 규모별 건강상태 평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3,000만원 이하	0 0.0%	5 45.5%	2 18.2%	4 36.4%	0 0.0%	11 100.0%
3,000초과- 1억이하	1 1.8%	4 7.0%	21 36.8%	26 45.6%	5 8.8%	57 100.0%
1억초과-2 억 이하	3 4.7%	13 20.3%	31 48.4%	14 21.9%	3 4.7%	64 100.0%
2억초과-4 억이하	0 0.0%	4 11.1%	21 58.3%	9 25.0%	2 5.6%	36 100.0%
4억초과-6 억이하	0 0.0%	0 0.0%	2 16.7%	10 83.3%	0 0.0%	12 100.0%
6억초과-8 억이하	0 0.0%	0 0.0%	0 0.0%	5 100.0%	0 0.0%	5 100.0%
8억초과-1 0억이하	0 0.0%	0 0.0%	2 50.0%	1 25.0%	1 25.0%	4 100.0%
전체	4 2.1%	26 13.8%	79 41.8%	69 36.5%	11 5.8%	189 100.0%

주: 자신이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IV. 토의

이렇게 경제적 지위에 관한 분포를 비교해 볼 때, 소득, 주관적 계층 평가, 아파트 자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과 달리 주관적 계층 평가와 아파트 자산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즉 주관적 계층 평가와 아파트 자산 평가의 경우는 하층과 자산 규모가 작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물론 현재 아파트 자산 규모가 참값이고 다른 경제적 지위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료 자체도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주택 상황이 열악한 경우에 이를 자료화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어떠한 방법으로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가에 따라 연구결과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어떤 분야에서 차이를 발견해도, 주관적 계층 평가를 기준으로 그 분야에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객관적 경제적 지위를 단순히 주관적 경제적 지위로 간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후자를 전자의 대체 변수(proxy)로 단순히 대체하는 것은 연구결과에도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둘째, 불완전하지만 아파트 시세 같은 보다 객관적인 지표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거품 논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자산에서 계층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처럼 정치, 사회 분야에서 여러 가지 태도와 행위에서 본격적으로 주거 계급(housing class)의 영향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이용된 아파트 시세자료는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다른 대안으로 한국감정원 자료, 행정부처의 공시지가 혹은 기준시가 자료 같이 보다 넓은 범위의 부동산 자료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향후에는 주택거래 실거래가 공개 같은 주택정책의 방향을 고려해 볼 때,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국민은행. [http://est.kbstar.com/quics?page=s\\_est](http://est.kbstar.com/quics?page=s_est).

여성가족부. 2005.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통계청. 2005. 2005년도 4/4분기 가계수지 동향. 통계청.

홍두승·구해근. 2001. 사회계층과 불평등. 다산출판사.

Alder, N. E. and Ostrove, J. M. 1999.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What We know and What we don't."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896: 3-15.

Alwin, Duane F. 1987. "Distributive Justice and Satisfaction With Material Well-Be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1): 83-95.

Goldman, N. 2001.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Disentangling the Underlying Mechanism."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954: 118-139.

Jackaman, M. R. and R. W. Jackman. 1973. "An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569-582.

Jasso, Guillermina. 1989 "The Theory of the Distributive-Justice force in Human Affairs: Analyzing the Three Central Questions." Pp. 354-387 in Joseph Berger, Morris Zelditch, Jr., and Bo Anderson(eds.), *Sociological Theories in Progress: New Formulations*.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Major, Brenda and Kay Deaux. 1982. "Individual Differences in Justice Behavior." Pp.43-76 in Jerald Greenberg and Ronald L. Cohen (eds.), *Equity and Justice in 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